사회노동위 5주년, 불교-사회 잇는 가교 '우뚝'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출범 5주년… 각계각층 박수 세례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부처님 자비와 평등 정신으로 다가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사회노동위는 2012년 8월 쌍용차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을 다루기 위해 '노동위원회'로 출범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창립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스님들과 13명의 재가 집행위원들은 쌍용차 해결을 위한 매일 1,000배, 100일 기도에 돌입했다. 노동위는 노동 현안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 성소수자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굳이 활동 분야를 꼽자면 '사회적 약자, 핍박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이에 2015년 12월부터는 '사회노동위'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송파세모녀 추모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오체투지' '위안부 피해자 수요시위 주관' '성소수자 퀴어문화축제' 등 반경을 넓혀갔다. 현재는 실천위원 스님 20명과 재가 집행위원 15명이 활동 중이다.

작은 책상 하나를 유일한 살림살이로 시작했지만, 5년이 흐른 지금 사회노동위는 불교계 뿐 아니라 전(全) 사회가 주목하는 대사회적 기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단 기구임에도 불구, 사회에 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스님들이 '투쟁'이라 외치며 기꺼이 현장에 뛰어든 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자 있는 곳엔 사회노동위가"

"이웃종교인으로서 사회노동위를 존경하면서도 부러워한 이유는 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기동력이었습니다. 약자가 있는 곳에 항상 먼저, 그리고 함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알리길 바랍니다."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회노동위는 저희가 찾기 전에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이 늘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사무국장



사회노동위는 창립 5주년 기념식을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2012년 8월 '노동위원회'로 출범
5명 스님, 작은 책상 하나로 시작
세월호 · 성소수자 등 반경 넓히며
2015년 12월 '사회노동위'로 개편
"종단 기구 활동 · 기동력에 놀라"

그동안 현장에서 사회노동위와 인연을 맺은 노동자, 장애인, 세월호 유가족, 성소수자, 이웃종교인들은 그동안 사회노동위 활동에 대해 "항상 약자와 함께였다"며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사회노동위는 창립 5주년 기념식을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분야를 막론한 사회 활동을 펼친 만큼 이날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동물복지케어, KTX여승무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0여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5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박소연 동물복지케어 대표는 "사회노동위를 처음 만난 것은 2013년 말, 가금류 생매장 반대 기자회견 현장이었다. 스님들은 인간 뿐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항상 함께해주셨다"면서 "사회노동위를 보면서 '한 종교집단의 조직이 이런 활동력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며 감탄한 적도 있다. 앞으로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더 큰 자비심을 내주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4월 사고 발생 시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사회노동위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를 포함한 희생자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세월호 인양 전까지 수습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단원고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몇 년을 공포에 떨었는지 모른다. 억울하고 분해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특히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님은 항상 괜찮냐 묻고 손을 잡아주셨다. 또 배를 타고 해역에 나가 기도해준 스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며 눈물지었다.

또한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사회노동위와 함께 2년 전 딸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며 조계사 앞에서부터 정부청사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그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고마웠다"면서 "미수습자 5명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혜용 스님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사회노동위의 앞으로 5년, 10년에도 끝까지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사회노동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 곳곳의 더 많은 소외계층 및 약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5년 발자취

2012년	8월 27일 9월 17~12월 25일	'노동위원회' 출범 쌍용차 해결 100일 매일 1000배, 10만배 기도
2013년	11월 9일	비정규 노동자 추모제
2014년	3~4월 7월 10월	송파세모녀 추모제 및 49재 부위원장 도철 스님, 세월호 특별법 제적 촉구 32일 단식 노동현장 성소수자 차별 토론회
2015년	6월 7~8월 12월 16일	성소수자 초청 법회 세월호 기간제 교사 및 KTX여승무원 기도회 '사회노동위원회' 확대 개편
2016년	1월 3월 7~9월 5월, 12월	노동법 개정 반대 오체투지 삼성직업병 해결 촉구 기도 진도 사고 해역서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기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주관(2차례)
2017년	4월	세월호 인양 후 목포 신항에 기도법당 설치

기후문제 인식 확산 종교 · 시민 손잡다

ICE네트워크, 본격 활동 알려

국제사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다수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출범한 국제기후 · 종교 · 시민네트워크(ICE네트워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ICE네트워크는 9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ICE네트워크는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모인 아시아 17개국의 종교 · 시민사회 모임이다. 이정배 목사(생명평화마당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계종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 지리산종교연대 상임대표 오상선 신부 · 강해윤 원불교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대표다.

ICE네트워크는 2030년까지 아시아 30개국의 종교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앞서서는 △인식제고와 교육사업 △기후행동사업 △국가 ·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애드보커시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애드보커시 등 활동을 펼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반도 평화 범종교 나서야"

고양시종교인평화회의 창립기념 심포지엄 성료

고양시 종교인들이 한반도 내 고조되는 긴장과 위기 속에서도 평화적 해결과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대 종교인들은 각 종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화적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양시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대오)는 창립기념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역할'을 9월 18일 일산동구청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불교계 대표 발제자로 나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 종단의 노력이 아닌 전(全) 종교적 행동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진효 스님은 "평화통일은 문명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대각성인 만큼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범불교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한다"면서 "또한 종교계 전체 입장을 모아 종교계의 독자적 남북 교류를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종교계 통일대협약'을 검토해야한다. 최소한 종교계의 교류 · 인도 사업이 단절됨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한 심포지엄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이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진효 스님은 특히 정부가 지속적 민간교류를 보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신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밝힌 민간교류의 폭넓은 지원과 관련, 정부가 독점하는 민간교류에 대한 인허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즉 정부 권한 일부를 민간에 이양해 남북 민간교류의 독자성을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범종교적 차원의 활동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는 데는 모든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는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 평화의 공동이념을 모색하는데 기여해야한다"면서 "세계의 자매형제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 주변 4강대국들의 시민단체 및 교회와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대표회장 대오 스님은 "요즘 일부에서는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거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야한다"면서 "오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모은 고양시 종교인들이 먼저 화해에 앞장서자. 종교는 바로 평화다"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존 리 "불교계 후원에 학업 지속 감사"

아일랜드인 불교학도 향한 한국불교 응원

포교원 중심 십시일반 모연
750만원 전달… 학비 해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럽에서 한국불교 연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일랜드인 존 리 씨〈사진〉가 본지 보도(1158호, 8월 2일자) 이후 한국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게 됐다. 후원금 모연의 밑바탕은 조계종 포교원이었다.

존 리 씨는 최근 조계종 포교원을 통해 모연된 후원금 5563유로(한화 약 750만원)를 전달받고, Cork대학교 1년 등록금을 무사히 해결했다. 포교원 측은 약 한 달에 걸쳐 스님과 종무원, 불자들에게 존 리 씨의 사연을 알리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연했다. 이에 존 리 씨는 서툰 한국어지만 감사인사와 학업계획 등을 한국불자들에게 전하고자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왔다.

존 리 씨는 먼저 진심을 담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이름을 알진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동했다"면서 "얼굴을 맞대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아일랜드에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도와주신 불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존 리 씨는 1년간 헝가리 원광사와 폴란드 우봉사, 파리 길상사 등 한국불교사찰을 답사한 뒤 독일 · 세르비아 · 스페인 등 한국불교와 연계된 사찰 및 수련원을 방문해 한국불교의 유럽 정착 성공열쇠를 분석할 계획이다.

끝으로 자신의 꿈을 '죽기 전 아일랜드 통일'과 '아일랜드에 선(禪) 정착'이라고 밝힌 존 리 씨는 "통일 아일랜드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 정착에 관해서는 일조할 수 있다. 배은망덕한 철면피가 되지 않도록, 후원해주신 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용맹정진 하며 공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